

커쇼 “류, 다저스 에이스는 너야”



류현진, 애틀랜타전서 6년만에 완봉... 시즌 4승 5회까지 퍼펙트 행진...9이닝 4피안타 무사사구 평균자책점 2.03...내셔널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

2019년 MLB 류현진 주요 기록

- 삼진/볼넷 비율 22.5 1위 (삼진 45개, 볼넷 2개)
- 시즌 평균자책점 2.03 5위 (내셔널리그 4위)



등판 일자	날짜	상대팀	구장	피안타	실점	피홈런	볼넷	삼진	투구수	시즌평균자책점	결과	
1승	3월 29일	애리조나	홈	6	4	1 (1)	1	0	8	82	1.50	12:5
2승	4월 3일	샌프란시스코	홈	7	6	2 (2)	1	0	5	87	2.08	6:5
-	4월 9일	세인트루이스	원정	1	4	2 (2)	1	1	34	3.07	3:4	
패	4월 21일	밀워키	원정	5	6	2 (2)	2	1	9	92	3.10	0:5
3승	4월 27일	피츠버그	홈	7	8	2 (2)	1	0	10	105	2.96	6:2
-	5월 2일	샌프란시스코	원정	8	4	1 (1)	0	0	6	107	2.55	1:2
4승 (완봉승)	5월 8일	애틀랜타	홈	9	4	0 (0)	0	0	6	93	2.03	9:0

*MLB 개인 두 번째 완봉승, N. 14개 전 구단 상대 승리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두 번째 완봉승을 거두며 내셔널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를 달성했다.

류현진은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9이닝 동안 4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사사구 없이 삼진을 5개 잡으며 공 93개로 9이닝을 채운 류현진은 볼넷진의 도움 없이 경기를 끝냈다.

다저스는 류현진의 호투 속에 9-0으로 완승했다. 류현진이 완봉승을 거둔 건, 빅리그에 처음 입성한 2013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9이닝 2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 이후 개인 두 번째다. 2170일 만에 완봉승을 거둔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14개 전 구단 상대 승리까지 완성했다. 시즌 4승(1패)째도 챙겼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55에서 2.03으로 더 낮아졌다. 홈에서 특히 안정적으로 투구하는 류현진의 장점은 이날도 발휘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9월 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올해 홈 4경기까지 안방에서 치른 8경기에서 볼넷을 한 개도 주지 않았다.

2013년 빅리그에 입성한 류현진은 이날 전까지 내셔널리그 13개 팀을 상대로 승리를 챙겼다. 애틀랜타를 상대로는 정규시즌에서 3차례 선발 등판해 평균자책점은 2.95로 호투하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그러나 개인 통산 네 번째 애틀랜타전에서는 완봉승으로 앞선 등판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또 다른 개인 기록도 세웠다.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8이닝(4피안타 1실점)을 소화한 류현진은 8일에는 9이닝을 채우며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8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류현진은 이날 1회 초 첫 타자 오지 윌비스부터 5회 마지막 타자 덴스비 스완슨까지 15타자 연속 범타 처리하며 '퍼펙트 행진'을 이어갔다.

6회 초 첫 타자 타일러 플라워스에게 좌전 안타를 내주며 퍼펙트 행진이 멈췄지만, 다저스 팬들은 류현진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류현진은 7회 두 번째 안타를 내주며 2사 2루에 몰렸으나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의 잘 맞은 타구를 다저스 우익수 코디 벨린저가 멋지게 건어내면서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다. 8회와 9회에도 마운드를 지킨 류현진은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끝냈다.

류현진은 타석에서도 빛났다. 그는 6회 말 2사 1루에서는 우전 안타를 쳤다. 지난해 9월 2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226일 만에 나온 안타다.

/연합뉴스



“대단했어”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9-0으로 완봉승을 거둔 뒤 동료 커쇼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기적의 리버풀... 고개 숙인 메시

바르셀로나에 1차전 0-3 열세 뒤집고 2차전 4-0...극적 결승 진출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이 기적을 연출했다.

리버풀은 8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18-2019시즌 UCL 4강 2차전에서 바르셀로나(스페인)에 4-0으로 이겼다.

지난 1차전에서 0-3 패배를 당해 패색이 짙었던 리버풀은 2차전 대응으로 합계 스코어 4-3을 기록, 극적으로 결승에 올랐다.

지난 2005년 '이스탄불의 기적'을 연출하며 UCL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리버풀은 2019년 '안필드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또 한번 UCL에서 드라마를 썼다.

2005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AC밀란(이탈리아)과의 UCL 결승에서 리버풀은 전반에 3골을 내준 뒤 후반에 3-3을 만든 후 승부차기 끝에 우승했다.

리버풀은 또 이날 승리로 홈 무패 기록을 20경기(17승 3무)로 늘렸다.

무함마드 살라흐, 호베르트 피르미누가 부상으로 결장한 리버풀은 디보크 오리기와 제르단 사키리를 투입해 공격진을 꾸렸다.

이에 맞서는 바르셀로나는 1차전 대승을 수확했던 루이스 수아레스-필리피 코치뉴-리오넬 메시의 삼각 편대를 다시 출격시켰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리버풀은 전반 이른 시간 선제골을 뽑아내 희망의 불씨를 밝혔다.

전반 7분 바르셀로나의 헤딩 실수를 틈타 공을 잡은 조던 헨더슨은 문전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어 슈팅을 날렸다.

마르크-안드레 테어 슈테겐 골키퍼에게 막힌 이 슈팅이 오리기에 흘렸고, 오리기는 빈 골문으로 공을 차넣어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에도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내린 채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리버풀은 상대의 빈틈을 찾아내 추가골을 넣었다.

후반 9분 측면에서 상대 수비의 골을 빼앗은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는 문전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다. 쇠도하던 조르디니오 베아날들은 이를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 바르셀로나의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를 올린 베아날들은 2분 후 사키리가 올린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곧바로 추가 골을 뽑아냈다.

합계 스코어 3-3이 되자 웅크리고 있던 바르셀로나는 서서히 라인을 올리며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또다시 골을 만든 쪽은 홈에서 기세를 탄 리버풀이었다.

후반 34분 알렉산더 아널드는 기습적인 코너킥을 올렸고, 문전에 있던 오리기가 침착하게 마무리해 4번째 골을 뽑아냈다.

합계 스코어 4-3의 리드를 잡은 리버풀은 미드필더 2명을 수비라인으로 내려 '6백'을 형성해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막아냈다.

/연합뉴스

‘성적 부진’ KIA, 흥행도 고전

KBO리그 관중 200만명 돌파

두산 1위...챔스필드 전년비 18%↓

KIA 10일부터 SK·KT와 홈 6연전

KBO리그가 2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인기 구단' KIA 타이거즈는 성적 부진으로 흥행 중심에서 서지 못했다.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가 지난 7일 개막 183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이날 KIA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린 잠실 구장에 1만3196명이 찾은 등 전국 5개 구장에 총 3만 8889명이 입장하면서 누적 관중 201만9021명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3일(90경기) 100만 관중 돌파 이후 93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넘어섰다.

구단 별로는 두산이 홈 21경기에 30만51명이 입장하면서 10개 구단 중 최다 관중을 동원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22경기에 27만7942명이 입장해 그 뒤를 이었다.

SK 와이번스(26만2876명)와 LG 트윈스(24만 1465명), NC 다이노스(22만705명)까지 5개 구단이 관중 2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올 시즌 새 안방을 선보인 NC는 두 차례 매진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대비 75%의 관중 증가율을 보이며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홈 17경기에 16만460명이 입장한 삼성 라이온즈와 19경기에 11만4798명이 입장한 키움 히어로즈는 각각 지난해 대비 1%의 관중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KBO리그의 '전국구 구단'으로 꼽히는 KIA는 성적과 흥행에서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KIA는 지난달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즌 3차전에서 2-9패를 기록하며, 10구단 체제 후 처음으로 10위까지 추락했다.

하위권에서 전전공공하는 동안 KIA의 관중수는 지난해보다 18%나 감소했다.

홈 15경기에 15만4165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7259명보다 3만3094명이 줄었다. 평균 관중도 1만2484명에서 1만278명으로 떨어졌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3월 23일 LG와의 시즌 개막전에는 챔피언스필드 2만500석이 가득차면서 매진이 기록됐다. 24일에도 1만757명이 입장했다.

하지만 개막 2연패 속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첫 야간 경기가 진행됐던 3월 26일 한화전 관중수가 5553명으로 급감했다. 날씨 여파로 한화와 3연전 기간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관중은 1만7433명에 불과했다.

기온이 회복한 뒤에는 성적 탓에 관중석이 찬바람이 불었다.

KIA의 최근 흥경이었던 지난 2일 삼성전에는 7550명의 관중이 찾은 데 그쳤다. 전날 802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중수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흥행 보증 수표'로 꼽혔던 양현종의 등판 날이었기 때문에 경기장의 빈 관중석이 더 슬슬하게 느껴졌다.

창원, 잠실로 이어진 원정 6연전 길에 올랐던 KIA는 10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SK와 주말 3연전에 나선다. 그리고 14일부터는 KT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대결하는 등 홈 6연전을 치른다.

KIA는 앞선 아쉬움을 뒤로하고 10일부터 시작되는 홈 6연전을 통해 성적-흥행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